

Research Center

한투의 아침

■ Today's Focus

일본시장: 보수적 시각 유지

■ 기업/산업분석

강원랜드, 대림산업

■ 전일 시장 특징주 및 테마

■ KIS 투자유망종목

단기 유망종목: SIMPAC Metal 외 5개 종목

중장기 유망종목: 이마트 외 5개 종목

■ 국내외 금융시장 및 수급 동향



투자전략 | 박소연
해외주식 | 백찬규
경제분석 | 박정우

시황분석 | 김대준
신흥국·원자재 | 서태종
채권분석 | 오창섭

계량분석 | 안혁
중국시장 | 최철화
크레딧분석 | 김기명

스몰캡전략 | 정훈석
베트남시장 | 부쑤언토
해외채권 | 정영록

유동성분석 | 송승연
글로벌기업 | 정희석

자산배분전략 | 정현종
글로벌기업 | 김시우

일본시장: 보수적 시각 유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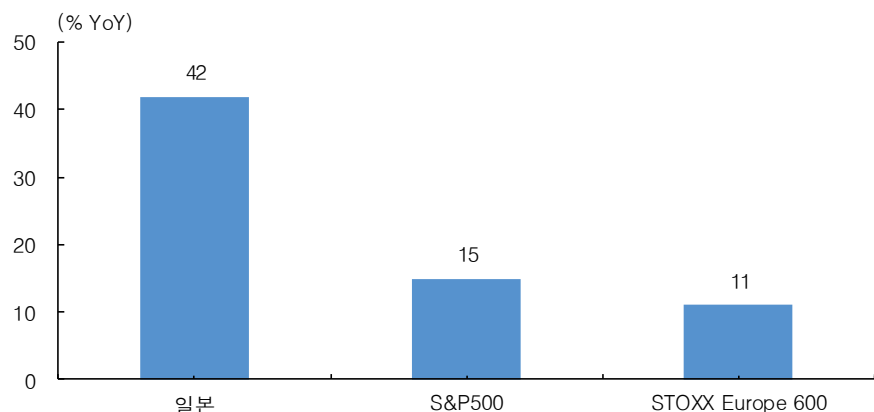
시장 급락 이후 반등 기대감에도 일본시장에 보수적 접근법 필요
환율과 기업 펀더멘털 환경 모두 비우호적 국면을 통과 중
4월 이후 대내외 요인이 동시에 개선 전망, 하반기에 집중하는 투자전략 추천

반등 기대감보다 보수적 시각 유지할 필요

최근 시장 급락 이후 반등 기대감에도 일본 주식시장에 대해 보수적인 시각을 제시한다. 금융시장 내 변동성 확대에 따른 시장 폭락 속에서 일본시장도 지난 1월 24일 고점 대비 11% 하락했다. 다만, 글로벌 경기환경과 기업 펀더멘털이 견고한 가운데, 이번 폭락 역시 일시적 조정에 그칠 것이라는 기대감이 존재하는 상황이다. 특히, 실적 시즌 동안 기업들의 강한 실적개선세가 확인됐고, 쿠로다(黒田) BOJ(Bank of Japan) 총재의 연임 가능성이 높아진 일본시장에 대해 적극적 매수 전략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기도 한다.

하지만, 우리는 상반기 일본시장에 대해 조심스러운 접근이 필요하다고 판단한다. 시장의 단기 주가조정에도 시장을 둘러싼 내외부 환경 모두가 비우호적이라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 일본 주식시장은 상반기보다 하반기에 집중된 투자전략이 필요(표1)하다

[그림 1] 일본 vs. 미국 vs. 유럽 상장기업 10~12월 분기 순이익 증가율



주: 지난 2월9일까지 실적발표 기업 합산/자료: 일본경제신문, 한국투자증권

〈표 1〉 일본시장 반기 별 펀더멘털 및 환율 환경

	1H15	2H15	1H16	2H16	1H17	2H17	1H18	2H18
기업 펀더멘털	부정적	부정적	중립적	긍정적	긍정적	긍정적	중립적	긍정적
환율 환경	긍정적	중립적	부정적	중립적 (연말 긍정적)	중립적	긍정적	부정적	소폭 긍정적
닛케이 225 수익률(%)	16.2	(6.4)	(15.6)	21.9	2.2	13.5	하락 전망	상승 전망

자료: 한국투자증권

쿠로다 연임에도 엔화강세 방향성 유지 전망

쿠로다 연임으로
BOJ 완화적 금융정책
유지 가능성 높아져

현직 쿠로다 BOJ 총재의 연임에도 불구하고 엔화는 단기적으로 강세 방향성이 유지되며 주식시장에 부정적일 전망이다. 일본정부는 지난 9일 차기 BOJ 총재로 쿠로다 하루히코 현직 총재를 지명할 방침을 전했다. 이는 2013년부터 이어져 온 양적완화 정책을 지속할 의지가 강함을 시사하는 결정이다. 쿠로다 총재 역시 최근 물가성장률 2% 타겟(2019년 목표)에 도달할 때까지 현행 완화적인 통화정책이 유지되어야 한다는 뜻을 거듭 밝혔다. 일각에서 실질적 긴축 전환(테이퍼링) 가능성이 제기되어 왔지만 표면적으로는 BOJ가 현재의 완화적 기조를 지속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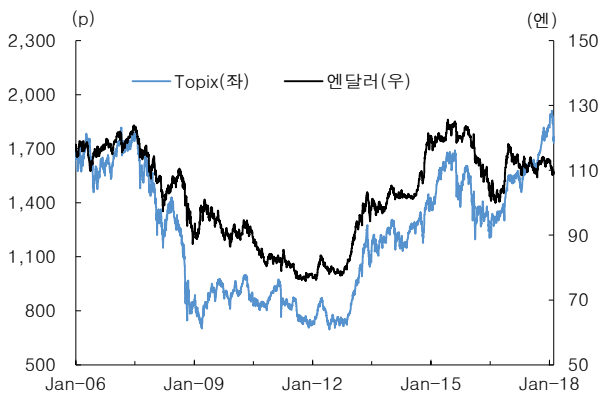
쿠로다 연임 효과 제한적,
금융시장 불확실성 확대가
단기적으로 엔화 강세 유발

하지만, 우리는 쿠로다 총재의 연임에 따른 긍정적인 효과가 제한적으로 분석한다. 엔화는 내부 정책방향보다 외부 환경에 더욱 영향을 받을 수 밖에 없고, 최근의 글로벌 금융시장의 불확실성이 엔화 강세를 유발하는 요인이기 때문이다. 과거의 사례 속에서도 일본은행의 정책이 엔화 가치에 실제 영향을 끼쳤던 적은 극소수에 불과하다.

미국금리와 엔화와의
전통적 메카니즘은 지금
작동하지 않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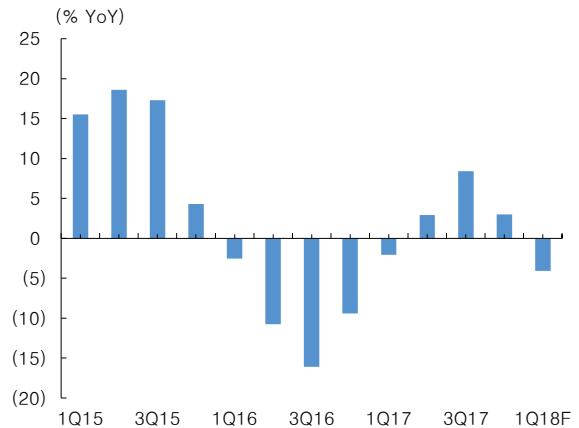
일반적으로는 미국의 금리상승은 상대적으로 엔화 약세를 유발하는 요인이다. 하지만, 최근 미국의 금리상승이 글로벌 금융시장의 불안(금리상승의 속도와 강도에 대한 우려)으로 이어지고 있어 엔화와 미국 금리와의 상관관계(미 금리상승/하락 → 달러강세/약세 → 엔화 약세/강세)는 작동하지 않고 있다. 엔화는 안전자산으로서 시장의 위험회피 수단으로 당분간 활용될 가능성이 높다.

[그림 2] 엔달러 환율 vs. Topix



자료: Bloomberg, 한국투자증권

[그림 3] 엔달러 분기 평균 YoY



자료: Bloomberg, 한국투자증권

펀더멘털 측면에서도 추가 모멘텀도 부족

높아진 실적추정치가
추가 상향조정 되기까지
시간이 다소 필요

10~12월 분기 실적발표 시즌을 통해서도 기업 펀더멘털 측면의 추가 모멘텀이 제한적임을 확인했다. 주요 수출대기업을 중심으로 이익개선이 나타나고 있지만 높아진 시장추정치를 부합하는 수준에 그치고 있다. 또한, 2017년 시장을 주도해 온 IT와 기계부품 업종의 주요 기업들의 실적가이던스 역시 변동이 크지 않은 것으로 파악(표2)된다. 이는 다수의 기업들이 가이던스를 상향 조정했던 상반기(3월 회계연도 기준 2017년 4~9월) 때와는 대조적인 모습이다. 이와 같은 흐름 속에서 FY2018의 실적개선 기대감도 최근 낮아졌다(표3).

〈표 2〉 주요 기업 FY2017 매출과 영업이익 가이던스 변화 추이(2017년 4월~12월말 분기 발표 기준)

기업		12월분기	10월분기	7월분기	4월분기	기업		12월 분기	10월 분기	7월분기	4월분기
TOYOTA	매출	29,000	28,500	28,500	27,500	Mitsubishi Electric	매출	4,420	4,390	4,370	4,300
	영업이익	2,200	2,000	1,850	1,600		영업이익	325	315	300	280
SONY	매출	8,500	8,500	8,300	8,000	Tokyo Electron	매출	1,130	1,130	980	980
	영업이익	720	630	500	500		영업이익	271	271	216	216
FANUC	매출	716	693	611	570	Komatsu	매출	2,328	2,328	2,135	2,135
	영업이익	225	209	170	156		영업이익	216	216	156	156
Shinetsu Chemical	매출	1,420	1,350	1,350	1,350	Kyocera	매출	1,560	1,560	1,500	1,500
	영업이익	323	268	268	268		영업이익	135	135	120	120
Canon	매출	4,300	4,080	4,050	4,020	Fuji Film HD	매출	2,460	2,460	2,460	2,460
	영업이익	420	350	330	270		영업이익	130	185	185	185
Denso	매출	5,030	5,000	4,740	4,610	Toray	매출	2,220	2,220	2,220	2,220
	영업이익	395	390	353	327		영업이익	165	165	165	165
Honda	매출	15,200	15,050	14,500	14,200	Nidec	매출	1,450	1,450	1,375	1,350
	영업이익	775	745	725	705		영업이익	170	170	165	160
Nissan	매출	11,800	11,800	11,800	11,800	Yaskawa Electric	매출	450	450	429	414
	영업이익	565	645	685	685		영업이익	54	54	46	37
Panasonic	매출	7,950	7,800	7,800	7,800	Nitto Denko	매출	860	860	800	800
	영업이익	350	335	335	335		영업이익	135	135	100	100
Hitachi	매출	9,300	9,300	9,050	9,050	Mitsubishi Chemical	매출	3,740	3,700	3,700	3,650
	영업이익	660	660	630	630		영업이익	361	345	345	290

주: FY2017은 주로 2017.4~2018.3 회계연도/자료: 블룸버그, 한국투자증권

〈표 3〉 주요 기업 FY2018년 영업이익의 추정치 변화 (30일 간격)

	FY2018 영업이익의 시장 추정치(십억엔)						FY2018 영업이익 추정치 30일전 대비 증가율(%)				
	현재	30 일전	60 일전	90 일전	120 일전	150 일전	현재	30 일전	60 일전	90 일전	120 일전
TOYOTA	2,286.0	2,234.8	2,232.6	2,212.6	2,204.0	2,187.0	2.3	0.1	0.9	0.4	0.8
SONY	730.4	709.1	710.8	694.0	622.3	618.2	3.0	(0.2)	2.4	11.5	0.7
FANUC	245.9	231.9	228.2	218.9	205.9	203.4	6.0	1.6	4.2	6.3	1.2
Shinetsu Chemical	376.2	367.6	362.8	349.0	335.0	334.1	2.3	1.3	3.9	4.2	0.3
Canon	401.0	387.0	387.0	388.5	350.9	338.5	3.6	0.0	(0.4)	10.7	3.7
Denso	432.2	426.0	421.5	408.2	396.4	396.5	1.5	1.1	3.3	3.0	(0.0)
Honda	910.3	907.0	904.8	893.1	882.4	882.7	0.4	0.2	1.3	1.2	(0.0)
Nissan	708.3	727.6	732.9	745.8	755.9	762.2	(2.7)	(0.7)	(1.7)	(1.3)	(0.8)
Panasonic	426.1	425.9	425.9	422.4	419.8	419.5	0.0	0.0	0.8	0.6	0.1
Hitachi	744.1	742.0	737.7	733.9	714.2	708.6	0.3	0.6	0.5	2.8	0.8
Mitsubishi Electric	363.8	360.4	360.8	359.4	354.8	351.4	0.9	(0.1)	0.4	1.3	1.0
Tokyo Electron	316.0	308.6	303.4	278.8	249.1	244.9	2.4	1.7	8.8	11.9	1.7
Komatsu	358.1	339.2	333.8	316.0	287.9	277.4	5.6	1.6	5.6	9.8	3.8
Kyocera	158.5	155.5	152.5	147.9	136.1	133.4	1.9	2.0	3.1	8.7	2.0
Nidec	207.4	204.9	204.6	203.9	200.4	198.0	1.2	0.2	0.3	1.7	1.2
Yaskawa Electric	69.5	68.7	67.7	67.2	64.2	62.5	1.2	1.6	0.7	4.7	2.7
Mitsubishi Chemical	376.4	378.6	378.0	359.5	350.1	334.8	(0.6)	0.2	5.2	2.7	4.6

주: FY2018은 주로 2018.4~2019.3 회계연도/자료: 블룸버그, 한국투자증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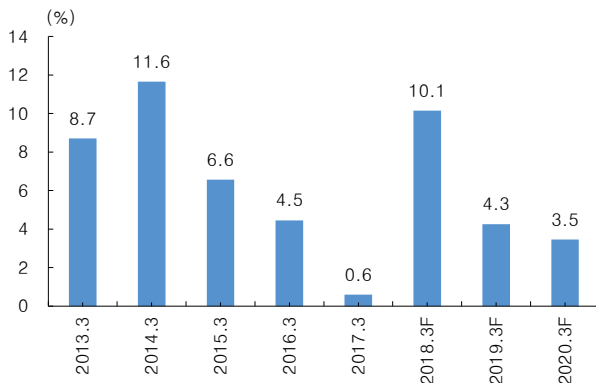
엔화 강세 환경은
시장 참여자들을 더욱
보수적으로 만들어

특히, 엔화의 방향성이 강세로 전환된 것도 기업과 금융권의 실적전망의 상승여력을 제한한다. 보수적인 특성을 지닌 일본의 시장참가자들이 2018년 환율 가정을 엔화 강세로 설정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우리는 일본 주요기업들의 2018년 연간 엔달러 환율 가정치를 105~108엔/달러 수준으로 예상한다. 2017년 수준과 비교하면 2018년에는 환율변동만으로도 실적감소 효과가 전망된다.

다만, 펀더멘털 훼손에 따른
모멘텀 둔화가 아니므로
하반기 실적모멘텀
재개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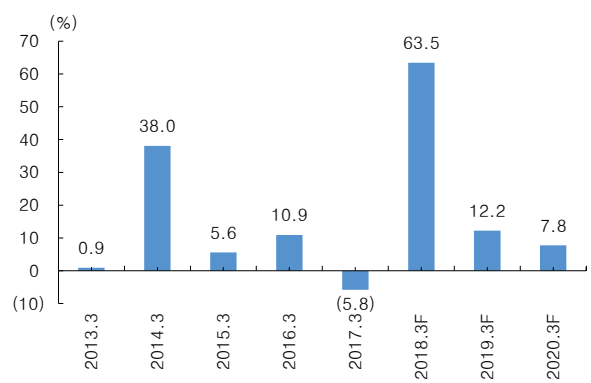
다만, 시장의 실적모멘텀 둔화가 주요 기업들의 펀더멘털 악화 때문은 아니라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2013년부터 이뤄진 구조조정, 성장산업 투자 확대, 기업통치 강화 등의 효과로 일본기업의 체질 개선은 오히려 지속될 전망이다. 일본시장의 현 상황은 실적추정치 급격한 상승의 반작용으로 나타나는 단기 조정 구간으로 분석된다. 우리는 일본 기업들의 실적전망치가 연간 실적발표가 이뤄지는 4월 전후에 다시 상향 조정될 것으로 예상한다.

[그림 4] Topix 시총 상위 200 기업 평균 매출 증가율



자료: Bloomberg, 한국투자증권

[그림 5] Topix 시총 상위 200 기업 평균 영업이익 증가율



자료: Bloomberg, 한국투자증권

결론: 2018년 일본시장은 상저하고, 4월 이후를 기회로 삼아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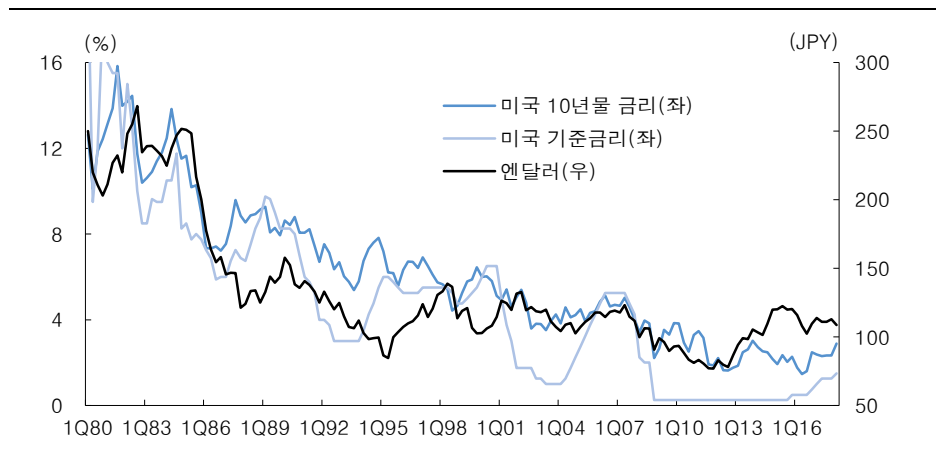
4월 이후 하반기부터
일본시장에 대한
긍정적인 시각 필요

우리는 2018년 일본시장의 흐름을 상저하고(上低下高)로 예상(1월 30일 발간 ‘일본시장: 상저하고’ 참고)한다. 환율과 기업 펀더멘털 환경 모두 상반기보다 하반기가 시장에 우호적이기 때문이다. 금융시장 안정화로 달러강세에 기반한 엔화 약세의 메커니즘이 하반기 재작동할 전망이다(그림6)이다. 또한, 펀더멘털 측면에서도 연간 실적발표 전후로 기업실적 기대감이 높아질 것으로 분석된다. 우리는 2018년 상저하고 흐름 속 일본시장의 분기점을 4월로 전망한다. 4월까지의 시장에 조심스러운 접근법을, 5월부터는 적극적인 투자전략을 추천한다.

닛케이225 타겟 26,500엔,
하반기 중심 지수 상승 전망

2018년 닛케이(日經)평균주가 타겟을 26,500엔으로 제시한다. 타겟은 현 지수 대비 24% 상승여력이 존재한다. 지수 타겟의 밸류에이션은 12개월 forward PE 20배(블룸버그 컨센서스 기준)이다. 타겟 PE 20배는 2012년 이후 일본시장 PE 최상단 19배보다 높다. 기업체질 개선(산업재편, 구조조정)으로 시장의 펀더멘털 강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적모멘텀 재개와 밸류에이션 re-rating은 하반기에 집중적으로 나타날 전망이다.

[그림 6] 미국 장기금리 vs. 엔달러환율



자료: Bloomberg, 한국투자증권

<표 4> 2018년 일본 시장 전망

지수	지수타겟	밸류에이션	상승여력
닛케이평균주가	26,500 엔	12개월 forward EPS 에 PE 20 배 적용 (PE 20 배는 역사적 고점 대비 높은 수준)	24%(2017.2.9 종가 기준)

자료: 블룸버그 추정치, 한국투자증권

- 본 자료는 고객의 증권투자를 돕기 위하여 작성된 당사의 저작물로서 모든 저작권은 당사에게 있으며, 당사의 동의 없이 어떤 형태로든 복제, 배포, 전송, 변형할 수 없습니다.
- 본 자료는 당사 리서치센터에서 수집한 자료 및 정보를 기초로 작성된 것이나 당사가 그 자료 및 정보의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는 없으므로 당사는 본 자료로써 고객의 투자 결과에 대한 어떠한 보장도 행하는 것이 아닙니다. 최종적 투자 결정은 고객의 판단에 기초한 것이며 본 자료는 투자 결과와 관련한 법적 분쟁에서 증거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 본 자료에 제시된 종목들은 리서치센터에서 수집한 자료 및 정보 또는 계량화된 모델을 기초로 작성된 것이나, 당사의 공식적인 의견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 이 자료에 게재된 내용들은 작성자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없이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강원랜드(035250)

예견된 부진

매출총량제 준수를 위한 소극적 영업으로 예견된 카지노 실적 부진
추석 황금 연휴 효과로 방문객수 늘어 비카지노 매출액은 13% YoY 증가
외부 노이즈와 비우호적 영업환경 지속으로 단기 모멘텀 제한적

Facts : 영업이익 20% YoY 감소

4분기 매출액은 3,994억원, 영업이익은 954억원으로 전년동기대비 각각 2.6%, 19.7% 줄어 예견된 수준의 부진으로 영업이익 기준 컨센서스 하단에 부합했다. 카지노 매출액은 3,770억원으로 3.4% 감소했는데 드롭액이 4.9% 역성장했으나 홀드율이 23.6%로 0.2%p 상승했다. 세부 영업 부문별 매출액 전년동기대비 성장률은 VIP 영업장(+2.8%), 슬롯머신(-1.6%), 일판테이블(-8.7%) 순이었다. 비카지노 부문 매출액은 224억원으로 12.7% 늘었는데, 추석 황금 연휴 효과로 콘도, 호텔 등 실적이 호전됐다. 영업이익 역성장에도 불구하고 세전이익과 순이익은 각각 22.3%, 23% 늘었는데 전년동기 영업외비용이 525억원(유형자산손상차손 374억원, 기타대손상각비 22억원, 기부금 111억원 등)에 달했던 기저 효과가 있었다.

Pros & cons : 카지노는 부진, 비카지노는 황금 연휴 효과로 호조

카지노 입장객수는 78만명으로 3.5% 늘었으나 매출총량제 준수를 위한 소극적인营业을 펼치면서 드롭액은 1조 5,998억원으로 전년동기대비 4.9% 줄고 인당드롭액도 8.1% 감소했다. 추석 황금 연휴 기간 객실 판매 호조로 콘도와 호텔 매출은 각각 15.3%, 6.9% 늘었다.

Action : 비우호적인 영업 환경 지속, 중립 의견 유지

강원랜드에 대해 투자의견 중립을 유지한다. 강원랜드를 둘러싼 외부 노이즈와 비우호적인 영업환경이 지속되고 있다. 금년 매출총량은 확정되지 않았으나, 2017년 연간 실적과 GDP 성장률 등을 감안했을 때 카지노 매출액의 전년대비 증가는 가능할 것이다. 그러나 지난 5일부터 채용비리 연루 직원을 업무에서 배제했는데 해당 직원 239명 중 197명이 딜러 직종에 있어 테이블 수 가동률이 기존대비 더 낮아졌고, 4월 1일부터 영업시간을 기존 20시간에서 18시간(10시~새벽 4시)으로 단축 운영할 예정으로 단기 모멘텀은 제한적인 상황이다. 중장기 성장성을 훼손시키고 있는 매출총량제 등 불확실성이 해소될 때까지 보수적인 접근을 추천한다.

하 회 부 합 상 회

영업이익의 컨센서스 대비를 의미

중립(유지)

Stock Data

KOSPI(2/12)	2,385
주가(2/12)	29,850
시가총액(십억원)	6,386
발행주식수(백만)	214
52주 최고/최저(원)	38,800/29,850
일평균거래대금(6개월, 백만원)	11,887
유동주식비율/외국인지분율(%)	52.9/29.2
주요주주(%)	한국광해관리공단 36.3
	국민연금 6.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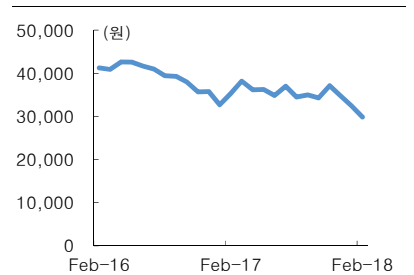
Valuation 지표

	2016A	2017F	2018F
PER(x)	15.9	16.1	12.2
PBR(x)	2.2	2.0	1.6
ROE(%)	14.5	13.0	13.7
DY(%)	2.8	2.7	3.5
EV/EBITDA(x)	8.2	9.0	6.9
EPS(원)	2,242	2,159	2,456
BPS(원)	16,017	17,175	18,508

주가상승률

	1개월	6개월	12개월
절대주가(%)	(4.9)	(16.3)	(14.5)
KOSPI 대비(%p)	(0.5)	(19.1)	(29.4)

주가추이



자료: WISEfn

최민하

mhchoi@truefriend.com

〈표 1〉 분기 실적 및 컨센서스

(단위: 십억원)

	4Q16	1Q17	2Q17	3Q17	4Q17P	QoQ(%)	YoY(%)	컨센서스
매출액	410.0	423.0	387.0	395.1	399.4	1.1	(2.6)	386.7
영업이익	118.8	162.4	135.5	137.6	95.4	(30.7)	(19.7)	102.5
영업이익률(%)	29.0	38.4	35.0	34.8	23.9	(11.0)	(5.1)	26.5
세전이익	77.1	168.0	143.0	160.9	94.3	(41.4)	22.3	93.4
순이익	63.7	129.8	110.4	119.0	78.4	(34.1)	23.0	74.2

자료: 한국투자증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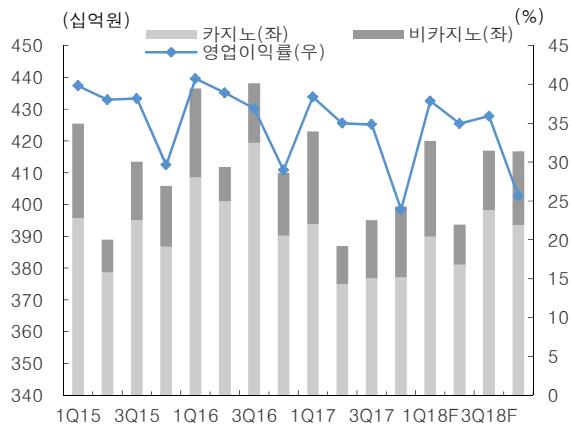
〈표 2〉 강원랜드의 분기 추이와 전망

(단위: 십억원, 명, %, %p)

	1Q16	2Q16	3Q16	4Q16	1Q17	2Q17	3Q17	4Q17	1Q18F	2Q18F	3Q18F	4Q18F
드롭액	1,776.1	1,762.0	1,822.3	1,682.0	1,740.7	1,644.0	1,654.1	1,599.8	1,718.8	1,681.8	1,746.8	1,662.4
홀드율	23.0	22.8	23.0	23.4	22.7	22.8	22.8	23.6	22.7	22.7	22.8	23.7
방문자수	817,060	731,734	867,230	753,632	794,729	725,580	814,335	780,304	816,796	737,246	832,629	787,996
매출액	436.6	411.8	438.1	410.0	423.0	387.0	395.1	399.4	420.0	393.7	417.0	416.7
카지노	408.5	401.0	419.4	390.2	393.8	375.0	376.7	377.0	389.9	381.1	398.2	393.6
회원영업장	69.9	68.4	71.4	63.5	70.0	66.4	56.9	65.2	63.4	60.6	63.4	65.4
일반테이블	188.6	184.9	191.0	186.8	177.5	167.3	170.0	170.3	170.6	175.4	167.1	166.4
슬롯머신	152.8	150.3	157.3	144.4	146.9	140.5	149.8	142.0	155.9	145.0	167.7	161.8
비카지노	28.1	10.8	18.7	19.9	29.1	12.0	18.4	22.4	30.1	12.7	18.8	23.1
매출원가	185.0	182.6	195.3	222.3	187.2	186.4	182.9	231.0	188.2	189.1	191.4	236.1
컴프	37.0	38.2	39.7	40.7	39.2	38.4	37.8	45.4	37.7	38.6	39.6	47.3
관광진흥개발기금	41.1	39.8	41.9	39.4	38.9	37.4	37.7	37.8	39.0	38.1	39.8	39.3
개별소비세	17.5	21.0	21.8	20.5	16.6	19.5	19.6	19.6	19.0	19.2	20.0	19.7
매출총이익	251.5	229.2	242.8	187.8	235.7	200.6	212.2	168.4	231.8	204.6	225.6	180.6
영업이익	177.9	160.3	161.7	118.8	162.4	135.5	137.6	95.4	159.0	137.6	149.8	106.9
영업이익률	40.7	38.9	36.9	29.0	38.4	35.0	34.8	23.9	37.9	34.9	35.9	25.6
세전이익	189.1	164.1	166.6	77.1	168.0	143.0	160.9	94.2	167.5	147.2	170.8	113.6
지배주주순이익	142.8	123.7	124.3	63.8	129.8	110.4	119.0	78.4	139.2	122.3	141.9	94.5
(% YoY)												
드롭액	4.3	7.7	5.1	1.0	(2.0)	(6.7)	(9.2)	(4.9)	(1.3)	2.3	5.6	3.9
홀드율	(0.2)	(0.4)	0.2	(0.0)	(0.3)	0.1	(0.2)	0.2	0.1	(0.2)	0.0	0.1
방문자수	2.0	1.2	1.8	(0.5)	(2.7)	(0.8)	(6.1)	3.5	2.8	1.6	2.2	1.0
매출액	2.6	5.9	6.0	1.0	(3.1)	(6.0)	(9.8)	(2.6)	(0.7)	1.7	5.5	4.3
카지노	3.2	5.9	6.2	0.9	(3.6)	(6.5)	(10.2)	(3.4)	(1.0)	1.6	5.7	4.4
회원영업장	(5.3)	(2.7)	24.1	(4.0)	0.3	(2.9)	(20.3)	2.8	(9.5)	(8.7)	11.4	0.3
일반테이블	2.5	5.6	3.0	4.4	(5.9)	(9.5)	(11.0)	(8.7)	(3.9)	4.8	(1.7)	(2.3)
슬롯머신	10.0	11.8	3.6	0.2	(3.8)	(6.5)	(4.8)	(1.6)	6.1	3.2	11.9	13.9
비카지노	(5.4)	5.8	1.4	3.5	3.7	10.8	(1.9)	12.7	3.3	5.5	2.2	3.3
매출원가	(0.3)	2.9	7.5	3.4	1.2	2.1	(6.3)	3.9	0.5	1.5	4.6	2.2
컴프	(1.1)	6.7	8.1	(3.8)	5.9	0.4	(4.7)	11.5	(4.0)	0.6	4.6	4.1
관광진흥개발기금	4.8	4.7	6.2	1.3	(5.3)	(5.9)	(10.2)	(4.3)	0.1	1.7	5.6	4.2
개별소비세	4.4	6.1	6.2	1.3	(4.9)	(7.1)	(10.2)	(4.3)	14.4	(1.2)	2.1	0.3
매출총이익	4.9	8.4	4.7	(1.7)	(6.3)	(12.5)	(12.6)	(10.3)	(1.7)	2.0	6.3	7.2
영업이익	5.0	8.4	2.4	(1.1)	(8.7)	(15.5)	(14.9)	(19.7)	(2.1)	1.6	8.8	12.0
영업이익률	0.9	0.9	(1.3)	(0.6)	(2.3)	(3.9)	(2.1)	(5.1)	(0.5)	(0.1)	1.1	1.8
세전이익	6.7	20.1	2.0	(33.9)	(11.1)	(12.8)	(3.4)	22.3	(0.3)	2.9	6.1	20.5
지배주주순이익	7.9	27.1	4.5	(31.4)	(9.1)	(10.7)	(4.3)	23.0	7.2	10.8	19.3	20.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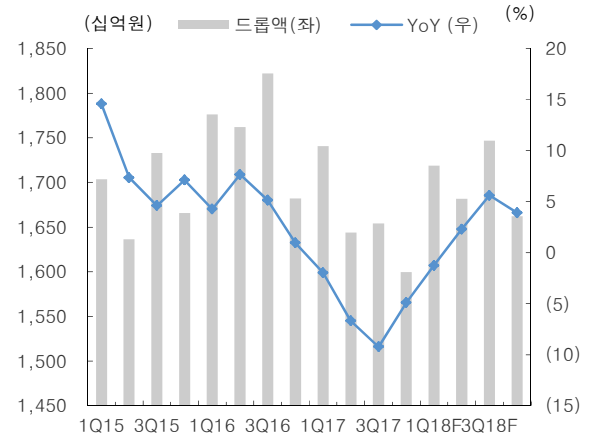
자료: 강원랜드, 한국투자증권

[그림 1] 부문별 분기 매출액과 영업이익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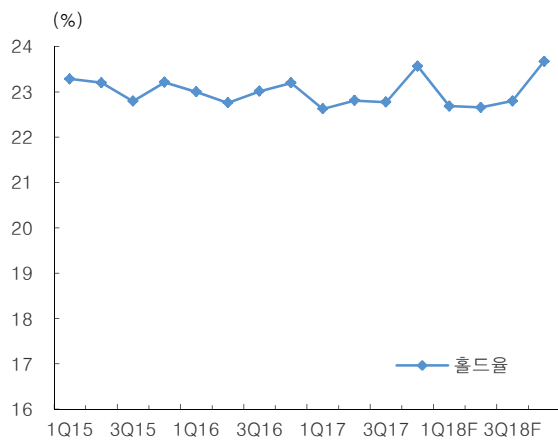
자료: 강원랜드, 한국투자증권

[그림 2] 분기 드롭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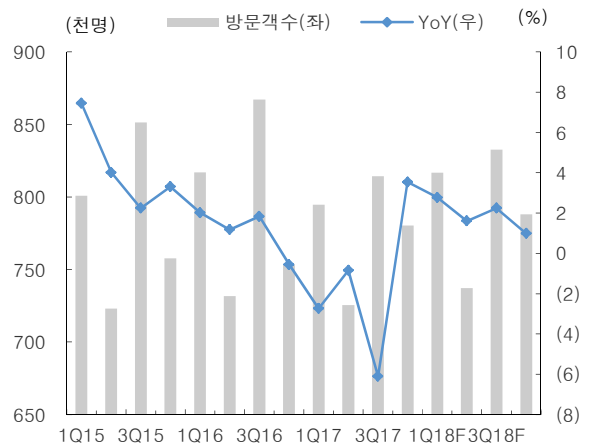
자료: 강원랜드, 한국투자증권

[그림 3] 분기 홀드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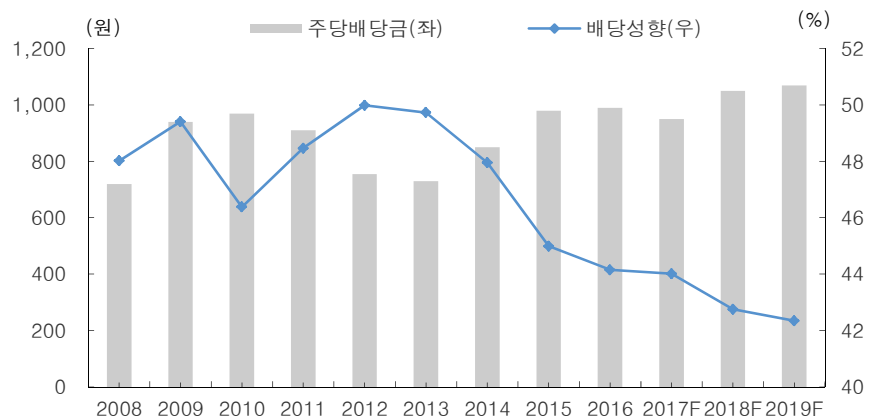
자료: 강원랜드, 한국투자증권

[그림 4] 분기 방문객 수



자료: 강원랜드, 한국투자증권

[그림 1] 주당배당금과 배당성향



자료: 강원랜드, 한국투자증권

〈표 3〉 강원랜드의 카지노 영업시간과 테이블 수

(단위: 개)

영업시간	기존	변경	감소분
	20 시간/일 오전 10 시~새벽 6 시	18 시간/일 오전 10 시~새벽 4 시	-2 시간 NA
게임별 세부내역			
테이블	200	180	(20)
일반테이블	180	160	(20)
블랙잭	66	60	(6)
바카라	72	60	(12)
룰렛	14	12	(2)
다이사이	7	7	-
빅휠	2	2	-
포커	16	16	-
카지노워	3	3	-
VIP 테이블	20	20	-
슬롯머신	1,360	1,360	-

자료: 금융감독원전자공시시스템(DART), 강원랜드, 한국투자증권

〈표 4〉 연간 실적 추이와 전망

(단위: 십억원, %, %p)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F	2019F
드롭액	5,750.5	5,854.0	6,223.6	6,739.2	7,042.4	6,638.7	6,809.9	6,859.1
홀드율	21.1	21.8	22.8	23.1	23.0	22.9	22.9	23.0
방문자수	3,024,510	3,067,993	3,006,900	3,133,391	3,169,656	3,114,948	3,174,667	3,200,344
매출액	1,296.2	1,361.3	1,496.5	1,633.7	1,696.5	1,604.5	1,647.4	1,663.5
카지노	1,213.1	1,277.3	1,418.7	1,556.1	1,619.0	1,522.6	1,562.7	1,576.9
회원영업장	193.7	204.5	259.6	267.7	273.1	258.6	252.8	253.2
일반테이블	638.2	643.6	672.1	723.4	751.4	685.2	679.5	687.1
슬롯머신	377.3	430.6	491.6	569.2	604.8	579.3	630.4	636.6
비카지노	83.1	84.0	77.9	77.6	77.5	81.9	84.6	86.6
매출원가	647.8	726.1	722.3	759.6	785.2	787.5	804.8	812.9
컴프	128.0	142.2	141.4	152.3	155.7	160.8	163.1	163.6
관광진흥개발기금	120.4	127.4	141.7	155.6	162.2	151.8	156.2	157.5
개별소비세	59.0	62.6	70.0	77.2	80.7	75.3	77.9	79.3
매출총이익	648.3	635.2	774.2	874.1	911.4	816.9	842.6	850.6
영업이익	404.9	388.0	513.2	595.4	618.6	530.9	553.3	557.4
세전이익	407.1	393.8	495.9	593.9	596.9	566.2	599.0	616.3
지배주주순이익	306.2	297.6	359.4	441.6	454.6	437.6	497.9	512.3
매출총이익률	50.0	46.7	51.7	53.5	53.7	50.9	51.1	51.1
영업이익률	31.2	28.5	34.3	36.4	36.5	33.1	33.6	33.5
순이익률	23.6	21.9	24.0	27.0	26.8	27.3	30.2	30.8
(% YoY)								
드롭액	(0.3)	1.8	6.3	8.3	4.5	(5.7)	2.6	0.7
홀드율	0.4	0.7	1.0	0.3	(0.1)	(0.1)	0.0	0.0
방문자수	1.4	1.4	(2.0)	4.2	1.2	(1.7)	1.9	0.8
매출액	2.4	5.0	9.9	9.2	3.8	(5.4)	2.7	1.0
카지노	1.8	5.3	11.1	9.7	4.0	(6.0)	2.6	0.9
회원영업장	11.5	5.6	26.9	3.1	2.0	(5.3)	(2.2)	0.1
일반테이블	(2.0)	0.8	4.4	7.6	3.9	(8.8)	(0.8)	1.1
슬롯머신	2.8	14.1	14.2	15.8	6.2	(4.2)	8.8	1.0
비카지노	12.6	1.0	(7.3)	(0.3)	(0.1)	5.6	3.4	2.3
매출원가	20.3	12.1	(0.5)	5.2	3.4	0.3	2.2	1.0
컴프	11.6	11.1	(0.6)	7.7	2.2	3.3	1.4	0.3
관광진흥개발기금	1.9	5.8	11.2	9.8	4.3	(6.4)	2.9	0.9
개별소비세	-	6.2	11.9	10.3	4.5	(6.7)	3.5	1.8
매출총이익	(10.9)	(2.0)	21.9	12.9	4.3	(10.4)	3.1	0.9
영업이익	(17.3)	(4.2)	32.2	16.0	3.9	(14.2)	4.2	0.7
세전이익	(18.5)	(3.3)	25.9	19.8	0.5	(5.1)	5.8	2.9
지배주주순이익	(19.7)	(2.8)	20.8	22.9	2.9	(3.7)	13.8	2.9

자료: 강원랜드, 한국투자증권

〈표 4〉 실적 추정 변경

(단위: 십억원, 천명, %)

	2018F			2019F		
	변경전	변경후	%	변경전	변경후	%
드롭액	7,025.8	6,809.9	(3.1)	7,279.2	6,859.1	(5.8)
홀드율	23.2	22.9	(0.3)	23.3	23.0	(0.3)
방문객수	3,136	3,175	1.2	3,188	3,200	0.4
매출액	1,716.1	1,647.4	(4.0)	1,782.1	1,663.5	(6.7)
영업이익	601.9	553.3	(8.1)	629.3	557.4	(11.4)
영업이익률	35.1	33.6	(1.5)	35.3	33.5	(1.8)
세전이익	640.1	599.0	(6.4)	681.9	616.3	(9.6)
순이익	473.4	497.9	5.2	504.3	512.3	1.6

기업개요 및 용어해설

강원랜드는 카지노사업을 주 업종으로 하며, 이와 연계된 호텔, 콘도 등 숙박시설과 골프장, 스키장 등의 레저 시설을 운영하고 있다. 1995년 강원도 남부 폐광지역의 경제 회생과 국내관광산업의 활성화를 위해 폐광지역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폐광지역지원법)이 제정돼 1998년 국내 최초 내국인 출입 가능 카지노 사업자로 설립됐다. 폐광지역법은 두차례 시효가 연장돼 현재 시효는 2025년까지다. 강원랜드는 8년만에 증설이 허가돼 2013년 6월 그랜드오픈을 했다.

- 드롭액: 테이블 등에서 고객이 칩스 구입을 위해 지불한 금액
- 홀드율: 순매출 / 드롭액
- 관광진흥개발기금: 카지노 사업자는 카지노 매출액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개발기금으로 납부
- 매출총량제: 복권, 경마, 경륜, 카지노, 체육진흥투표권, 경정 등 6대 사행산업의 매출 총량 한도를 의미

재무상태표

(단위: 십억원)

	2015A	2016A	2017F	2018F	2019F
유동자산	1,750	1,810	1,875	1,911	1,984
현금성자산	106	93	136	168	196
매출채권및기타채권	28	24	39	44	53
재고자산	2	1	1	1	1
비유동자산	1,940	2,169	2,204	2,373	2,534
투자자산	411	670	650	696	740
유형자산	1,354	1,316	1,381	1,499	1,598
무형자산	3	2	2	5	5
자산총계	3,691	3,979	4,079	4,284	4,518
유동부채	665	719	571	492	435
매입채무및기타채무	540	586	538	473	416
단기차입금및단기사채	0	0	0	0	0
유동성장기부채	0	0	0	0	0
비유동부채	28	7	8	6	3
사채	0	0	0	0	0
장기차입금및금융부채	0	1	2	0	0
부채총계	693	726	579	498	438
지배주주지분	2,997	3,253	3,500	3,785	4,081
자본금	107	107	107	107	107
자본잉여금	129	129	129	129	129
기타자본	(174)	(174)	(174)	(174)	(174)
이익잉여금	2,935	3,190	3,435	3,720	4,016
비지배주주지분	0	0	0	0	(0)
자본총계	2,998	3,253	3,501	3,785	4,081

현금흐름표

(단위: 십억원)

	2015A	2016A	2017F	2018F	2019F
영업활동현금흐름	575	596	360	483	517
당기순이익	442	455	438	498	512
유형자산감가상각비	74	75	75	81	87
무형자산상각비	1	0	0	0	0
자산부채변동	22	10	(152)	(96)	(80)
기타	36	56	(1)	0	(2)
투자활동현금흐름	(399)	(411)	(125)	(236)	(271)
유형자산투자	(40)	(75)	(140)	(199)	(185)
유형자산매각	0	1	0	0	0
투자자산순증	(359)	(337)	23	(46)	(44)
무형자산순증	(0)	(0)	(0)	(4)	(0)
기타	0	0	(8)	13	(42)
재무활동현금흐름	(172)	(198)	(192)	(215)	(217)
자본의증가	0	0	0	0	0
차입금의순증	0	1	1	(2)	0
배당금지급	(172)	(199)	(201)	(193)	(213)
기타	0	0	8	(20)	(4)
기타현금흐름	0	0	0	0	0
현금의증가	4	(13)	43	32	28

주: K-IFRS (연결) 기준

손익계산서

(단위: 십억원)

	2015A	2016A	2017F	2018F	2019F
매출액	1,634	1,697	1,604	1,647	1,663
매출원가	760	785	788	805	813
매출총이익	874	911	817	843	851
판매관리비	279	293	286	289	293
영업이익	595	619	531	553	557
금융수익	43	41	54	50	53
이자수익	41	40	54	50	53
금융비용	0	1	1	0	0
이자비용	0	1	1	0	0
기타영업외손익	(44)	(62)	(17)	(4)	6
관계기업관련손익	0	0	(0)	(0)	(0)
세전계속사업이익	594	597	566	599	616
법인세비용	152	142	129	101	104
연결당기순이익	442	455	438	498	512
지배주주지분순이익	442	455	438	498	512
기타포괄이익	23	(1)	3	0	0
총포괄이익	465	454	440	498	512
지배주주지분포괄이익	465	454	441	498	512
EBITDA	670	694	606	634	645

주요투자지표

	2015A	2016A	2017F	2018F	2019F
주당지표(원)					
EPS	2,178	2,242	2,159	2,456	2,527
BPS	14,824	16,017	17,175	18,508	19,888
DPS	980	990	950	1,050	1,070
성장성(% , YoY)					
매출증가율	9.2	3.8	(5.4)	2.7	1.0
영업이익증가율	16.0	3.9	(14.2)	4.2	0.7
순이익증가율	22.9	2.9	(3.7)	13.8	2.9
EPS증가율	22.9	2.9	(3.7)	13.8	2.9
EBITDA증가율	13.7	3.6	(12.6)	4.7	1.6
수익성(%)					
영업이익률	36.4	36.5	33.1	33.6	33.5
순이익률	27.0	26.8	27.3	30.2	30.8
EBITDA Margin	41.0	40.9	37.8	38.5	38.7
ROA	12.5	11.9	10.9	11.9	11.6
ROE	15.5	14.5	13.0	13.7	13.0
배당수익률	2.6	2.8	2.7	3.5	3.6
배당성향	45.0	44.2	44.0	42.8	42.3
안정성					
순차입금(십억원)	(1,705)	(1,768)	(1,819)	(1,840)	(1,901)
차입금/자본총계비율(%)	0.0	0.0	0.1	0.0	0.0
Valuation(X)					
PER	17.6	15.9	16.1	12.2	11.8
PBR	2.6	2.2	2.0	1.6	1.5
EV/EBITDA	9.5	8.2	9.0	6.9	6.7

대림산업(000210)

2014년 어닝쇼크 당시의 주가 수준

과매도, PBR 0.5배, PER 5배 미만

시장 급락과 함께 산업재도 예외는 아니었다. 특히 대림산업은 연초 이래 대형 건설주 중 하락률 1위다. 현 주가는 사우디에서 5천억원의 영업손실이 발생했던 2014년 하반기 수준이다. 절대로 지금이 2014년보다 나쁘다고 할 수 없다. 업종 공통의 현상이지만 2018년 대림산업의 건설매출 역시 감소할 것이다. 누적된 해외수주 급감과 주택매출 둔화 영향이다. 그러나 2017년 3천억원의 추가 원가가 발생했던 토목사업의 원가를 안정화로 올해 최대 순이익을 경신할 전망이다.

두 가지 오해

유독 두드러진 주가 하락의 이유는 두 가지였다. 1) 2018년 보수적인 수주 가이드라인으로 성장 의구심이 제기됐다. 2) 이어 태국 PTTGC와 미국 ECC 합작투자 계획 발표로 투자재원에 대한 우려도 제기됐다. 일단 올해 해외수주는 2~3조원 달성을 예상한다. 1분기 싱가포르 '투아스'항만(10억달러) 결과가, 상반기 사우디 '마덴' 압 모니아(9억달러) 결과가 예정돼 있다. 모두 2015년 수주한 이전 패키지의 후속 프로젝트라 경쟁 우위에 있다. 또한 투자 예정인 미국 프로젝트는 150만톤의 에틸렌과 폴리에틸렌 설비로 유사 사례로 판단 시 총 투자액은 약 10조원으로 추정된다. 투자액의 55%는 차입금, 45%는 자본으로 가정하면 대림산업은 향후 5년간 연평균 4,500억원씩 투입할 것으로 추정된다. 대림산업은 지분법회사인 YNCC로부터 매년 3~4천억원의 배당을 수령해 왔다는 점에서 무리한 투자는 아니다.

중장기 catalyst는 지배구조 개선의 노력

올 들어 가장 혁신적 변화는 대림그룹의 지배구조 개선 노력이다. 연초 대림산업은 일감 몰아주기를 전면 근절하고 순환출자를 해소하기로 했다. 대림코퍼레이션-대림산업-오라관광-대림코퍼레이션으로 연결된 순환출자구조인데, 언론에 따르면 오라관광은 대림코퍼레이션의 지분 4.32%를 매각할 계획이다. 이후 실질적 홀딩스 역할을 하는 대림코퍼레이션은 대림산업의 지분을 추가 확대가 가능해질 것이다. 아무리 시장이 불안해도, PER 5배 미만의 밸류에이션은 사야 한다.

	매출액 (십억원)	영업이익 (십억원)	순이익 (십억원)	EPS (원)	증감률 (%)	EBITDA (십억원)	PER (x)	EV/EBITDA (x)	PBR (x)	ROE (%)	DY (%)
2015A	9,514	272	207	5,352	NM	359	12.5	9.0	0.6	4.8	0.4
2016A	9,854	419	265	6,868	28.3	528	12.7	8.5	0.7	5.9	0.3
2017F	12,333	547	496	12,906	87.9	663	6.4	5.9	0.6	10.2	0.6
2018F	10,327	574	581	15,115	17.1	694	4.9	5.3	0.5	10.8	0.7
2019F	10,524	655	664	17,257	14.2	781	4.3	4.4	0.5	11.1	0.7

주: 순이익, EPS 등은 지배주주지분 기준

매수(유지)

목표주가: 130,000원(유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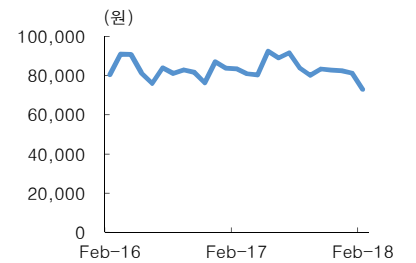
Stock Data

KOSPI(2/12)	2,385
주가(2/12)	73,000
시가총액(십억원)	2,540
발행주식수(백만)	35
52주 최고/최저(원)	93,500/73,000
일평균거래대금(6개월, 백만원)	14,657
유동주식비율/외국인지분율(%)	76.9/31.3
주요주주(%)	대림코퍼레이션 외 6인 23.1
	국민연금 13.5

주가상승률

	1개월	6개월	12개월
절대주가(%)	(14.5)	(16.6)	(13.1)
KOSPI 대비(%p)	(10.1)	(19.4)	(28.0)

주가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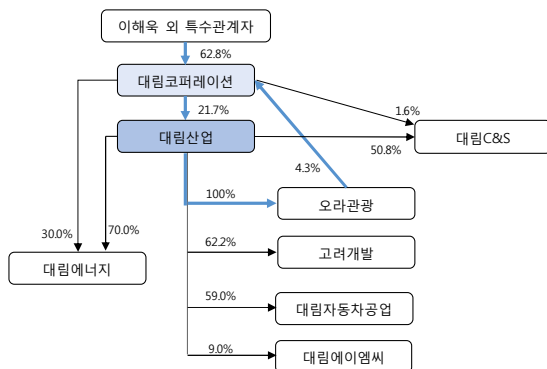


자료: WISEFin

이경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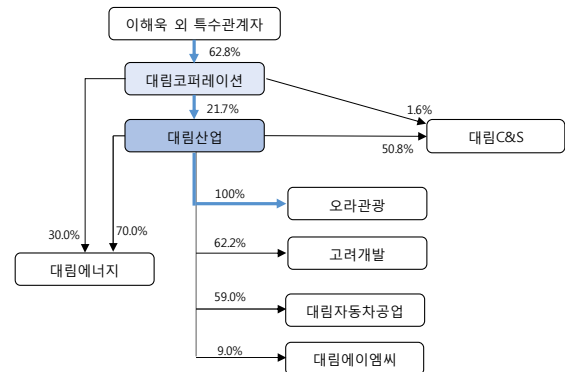
kyungja.lee@truefriend.com

[그림 1] 대림그룹 현재 지배구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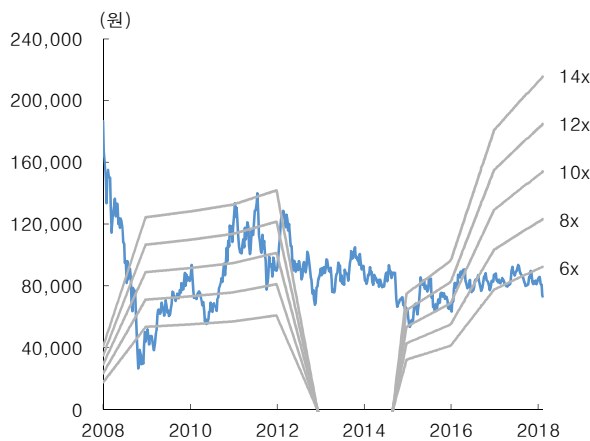
자료: 대림산업, 한국투자증권

[그림 2] 대림그룹 지배구조- 순환출자 해소 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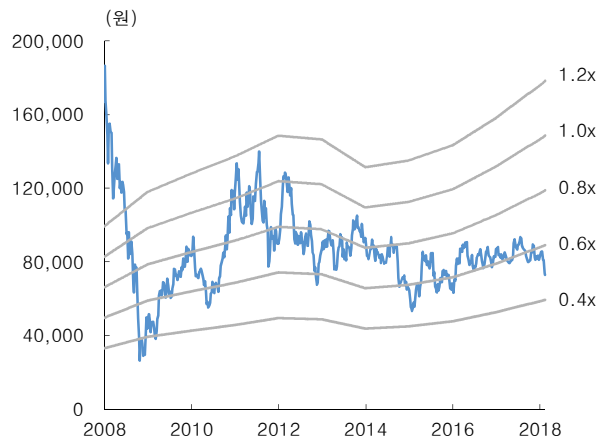
자료: 대림산업, 한국투자증권

[그림 3] 대림산업 PER Band



자료: 대림산업, 한국투자증권

[그림 4] 대림산업 PBR Band



자료: 대림산업, 한국투자증권

<표 1> 대림산업이 투자 계획을 발표한 복미 프로젝트 개요

구분	내용
프로젝트 위치	오하이오주, Belmont country
투자약정 내용	미국 PTTGC America 와 공동으로 석유화학단지(ECC, PE) 개발
사업규모	에틸렌 150 만톤, 폴리에틸렌(미정)
사업파트너	PTT Global Chemical
기회요인	Marcellus/Utica 셰일가스전 지역 위치, 경쟁력 있는 원료 조달 가능 평균 물류비(미 동부 도착 기준), 오하이오 \$53/톤 VS 휴스턴 \$84/톤 미국 동부 시장(미 내수 PE 시장의 70%)에 인접 유화부문의 안정적 매출/이익을 실현할수 있는 포트폴리오 구축(NCC&ECC)

자료: 한국투자증권

기업개요

대림산업은 토목, 건축, 플랜트 등의 종합건설업을 하는 건설사업부와 석유화학제품을 생산하는 석유화학사업부로 구성, 대림그룹 계열사 전반을 지배하는 대림산업은 매출액 비중이 가장 큰 회사로 대림그룹의 58.3% 차지

재무상태표

(단위: 십억원)

	2015A	2016A	2017F	2018F	2019F
유동자산	7,177	6,496	6,803	6,093	6,209
현금성자산	2,168	1,577	2,066	2,065	2,105
매출채권및기타채권	3,076	2,951	2,651	2,220	2,263
재고자산	829	902	863	723	737
비유동자산	4,888	5,896	6,229	6,108	6,443
투자자산	1,659	2,101	2,205	2,115	2,124
유형자산	1,832	1,964	2,097	2,380	2,675
무형자산	66	61	77	64	66
자산총계	12,065	12,392	13,032	12,201	12,652
유동부채	5,107	4,787	4,493	3,128	2,993
매입채무및기타채무	3,014	3,289	2,713	2,272	2,315
단기차입금및단기사채	539	305	305	117	0
유동성장기부채	725	593	543	543	543
비유동부채	2,152	2,459	2,900	2,858	2,784
사채	858	850	1,030	1,030	1,000
장기차입금및금융부채	904	1,145	1,289	1,341	1,288
부채총계	7,259	7,246	7,393	5,985	5,776
지배주주지분	4,345	4,611	5,089	5,651	6,296
자본금	219	219	219	219	219
자본잉여금	505	539	539	539	539
기타자본	(0)	0	0	0	0
이익잉여금	3,673	3,918	4,396	4,959	5,604
비지배주주지분	461	534	550	565	580
자본총계	4,806	5,145	5,638	6,216	6,876

현금흐름표

(단위: 십억원)

	2015A	2016A	2017F	2018F	2019F
영업활동현금흐름	385	147	414	(192)	408
당기순이익	217	293	511	596	679
유형자산감가상각비	79	102	108	113	119
무형자산상각비	8	7	8	7	7
자산부채변동	(79)	(546)	166	(539)	(93)
기타	160	291	(379)	(369)	(304)
투자활동현금흐름	(102)	(699)	(153)	361	(134)
유형자산투자	(195)	(254)	(241)	(396)	(414)
유형자산매각	5	6	0	0	0
투자자산순증	45	(440)	332	440	313
무형자산순증	(5)	(10)	(24)	6	(8)
기타	48	(1)	(220)	311	(25)
재무활동현금흐름	511	(46)	227	(170)	(234)
자본의증가	15	122	0	0	0
차입금의순증	502	(138)	261	(136)	(200)
배당금지급	(6)	(28)	(12)	(19)	(19)
기타	0	(2)	(22)	(15)	(15)
기타현금흐름	2	8	0	0	0
현금의증가	795	(591)	489	(0)	40

주: K-IFRS (연결) 기준

손익계산서

(단위: 십억원)

	2015A	2016A	2017F	2018F	2019F
매출액	9,514	9,854	12,333	10,327	10,524
매출원가	8,737	8,878	11,137	9,013	9,124
매출총이익	777	976	1,195	1,314	1,400
판매관리비	505	557	648	740	745
영업이익	272	419	547	574	655
금융수익	186	86	113	115	116
이자수익	111	40	48	50	51
금융비용	87	113	124	80	75
이자비용	80	94	85	80	75
기타영업외손익	(117)	(212)	(276)	(170)	(120)
관계기업관련손익	183	257	436	350	322
세전계속사업이익	436	436	696	789	898
법인세비용	219	143	185	192	219
연결당기순이익	217	293	511	596	679
지배주주지분순이익	207	265	496	581	664
기타포괄이익	(88)	(26)	0	0	0
총포괄이익	129	267	511	596	679
지배주주지분포괄이익	121	242	496	581	664
EBITDA	359	528	663	694	781

주요투자지표

	2015A	2016A	2017F	2018F	2019F
주당지표(원)					
EPS	5,352	6,868	12,906	15,115	17,257
BPS	112,559	119,454	131,828	146,405	163,119
DPS	300	300	500	500	500
성장성(%, YoY)					
매출증가율	2.4	3.6	25.2	(16.3)	1.9
영업이익증가율	NM	54.3	30.4	5.0	14.1
순이익증가율	NM	28.3	87.1	17.1	14.2
EPS증가율	NM	28.3	87.9	17.1	14.2
EBITDA증가율	NM	47.1	25.6	4.7	12.6
수익성(%)					
영업이익률	2.9	4.3	4.4	5.6	6.2
순이익률	2.2	2.7	4.0	5.6	6.3
EBITDA Margin	3.8	5.4	5.4	6.7	7.4
ROA	1.9	2.4	4.0	4.7	5.5
ROE	4.8	5.9	10.2	10.8	11.1
배당수익률	0.4	0.3	0.6	0.7	0.7
배당성향	5.7	4.4	3.8	3.2	2.8
안정성					
순차입금(십억원)	345	792	370	393	146
차입금/자본총계비율(%)	63.7	56.5	55.1	47.9	40.4
Valuation(X)					
PER	12.5	12.7	6.4	4.9	4.3
PBR	0.6	0.7	0.6	0.5	0.5
EV/EBITDA	9.0	8.5	5.9	5.3	4.4

전일 시장 동향과 특징주

개인 매수에 힘입어 코스피 2,380P선 회복

- 뉴욕증시는 인플레이션 상승 전망과 기준금리 인상 우려로 투자심리가 위축된 가운데 장중 채권금리가 급등락하며 변동성 장세가 이어졌으나 기술주와 부동산 업종 등이 강세를 보이며 반등에 성공. 2,380P선을 회복하며 출발한 코스피는 외국인과 연기금 매도에도 불구하고 개인과 투신을 비롯한 일부 기관 매수에 힘입어 장중 내내 상승세를 보이며 하루만에 반등에 성공. 겹상승으로 출발한 코스닥은 외국인과 기관 동반 매도세가 점차 확대되며 장 막판 상승분을 대부분 반납하며 강보합세로 마감. 미국증시 반등으로 투자심리가 다소 개선되며 중국 증시를 비롯해 아시아 주요국 증시가 일제히 반등에 성공
- 종목별 움직임을 살펴보면, 다음달 갤럭시S9 출시를 앞두고 수혜주로 부각되며 삼성전기가 강세를 보였으며, 제네릭 의약품 제조·판매업체인 알리코제약신규 상장 첫날 공모가를 웃도는 시초가를 형성 후 초강세를 보이며 상한가를 기록. 올해 수출 증가에 따른 실적 개선 전망에 녹십자가 견조한 흐름세를 보였으며, 최근 정부의 치매 치료 관련 투자 소식에 치매 관련주에 대한 관심이 고조된 가운데 관련 의약품 및 의료를 생산 중인 현대약품, 진원생명과학, 화일약품, 엘앤케이바이오 등이 강세를 보임. 또한, 일본에 이어 이탈리아 가상화폐 거래소에서도 해킹 사건이 발생했다는 사실에 보안주가 강세를 보였으며, 지난해 4분기 실적 호조 및 금리 상승에 따른 수혜 기대감에 은행주의 강세가 두드러짐. 반면, 지난해 부진한 실적을 기록한 한국타이어, 금호타이어가 나란히 약세를 보였으며, 지난해 영업손실을 기록하며 적자폭이 확대됐다는 소식에 한진중공업이 6% 이상 급락세를 보임

종목/테마	내 용
삼성전기(009150) ▶95,800 (+3.79%)	갤럭시S9 출시에 따른 수혜 기대감에 강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갤럭시S9 핵심부품(MLCC, 초고속카메라, SLP 등) 수요의 80%를 공급하고 있어 갤럭시S9 출시에 따른 수혜주로 부각되며 강세 - 아울러 하반기 신형 아이폰의 기판사업 매출이 상반기 대비 최소 3배 증가될 것으로 예상돼 1분기 실적을 저점으로 3분기까지 실적 개선세가 지속될 것으로 기대
알리코제약(260660) ▶23,500 (상한가)	신규 상장 첫날 상한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네릭 의약품 제조 및 판매하는 완제의약품업체로 신규 상장 첫날 공모가를 웃도는 시초가 형성 후 상한가 - 현재 일반의약품(OTC) 32개, 전문의약품(ETC) 88개 등 다양한 품목을 보유하고 있으며, 제품 제조 및 위탁 생산으로 CSO(판매대행사)를 통해 전국 종합병원 및 의원, 도매업체에 판매하고 있음
보안주	이탈리아 가상화폐 거래소 해킹 소식에 강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난달 일본에 이어 이탈리아 거래소에도 1,800억원 규모의 해킹 사고가 발생했다는 소식에 가상화폐 거래소의 안전성에 대한 불안감이 확산되며 강세 - 넥스지(081970, +9.52%), 케이사인(192250, +5.21%), 라온시큐어(042510, +4.57%), 이글루시큐리티(067920, +4.10%), 파수닷컴(150900, +3.83%), 이니텍(053350, +2.96%) 등 강세
은행주	금리 상승 시 수혜 기대감에 강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은행이 6년반만에 금리인상을 단행하며 이에 따른 실적 개선과 미 연준이 올해 3차례 기준금리 인상을 예고하고 있어 이에 따른 수혜 기대감에 강세 - KB금융(105560, +5.41%), 하나금융지주(086790, +5.06%), 기업은행(024110, +4.78%), JB금융지주(175330, +3.12%), 우리은행(000030, +2.30%), 광주은행(192530, +1.64%) 등 강세

참고: 상기 종목들은 전일 시장에서 특징적인 흐름을 보인 종목들로, 추천 종목과는 별개이니 참고자료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52주 신고가 및 상한가

종목	내 용
캔서롭(004310) ▶7,600 (+25.4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글로벌 시장 진출 성과 본격화에 따른 수혜 및 난임 시술 의료비 지원 확대 등 정책 모멘텀 기대감에 신고가 경신
현대약품(004310) ▶7,600 (+25.4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령화 사회 진입으로 노인인구가 급격히 증가함에 따라 치매 환자수도 동반 증가해 사회적 이슈로 부각됨. 이에 정부가 치매 치료 관련 지원에 나선 가운데 동사가 미 FDA 승인 치매 약물 4가지 라인업 모두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며 수혜 기대감에 신고가 경신

단기 유망종목: SIMPAC Metal 외 5개 종목

(단위: 원, %)

종 목 (코드)	현재가 (수익률)	편입가 (편입일자)	투자 포인트
SIMPAC Metal (090730)	10,900 (-6.0)	11,600 (2/7)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17년 하반기부터 설비를 풀 가동함에 따라 금년 1분기에는 분기 최고 실적 달성 예상 - 중국의 강력한 환경규제에 따른 합금철의 공급 감소로 합금철 가격이 구조적인 강세를 이어갈 전망 - 여의도의 SIMPAC 빌딩 지분과 보유하고 있는 현금성 자산이 시가총액의 60%를 상회하는 등 높은 자산가치 부각
TPC (048770)	6,530 (-3.5)	6,770 (1/26)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사업 고정비 및 시장 진입비용 반영 완료에 따른 턴어라운드 전망 - 정밀제어를 요구하는 자동차 장비 수요 증가에 따른 모션컨트롤 사업부분의 실적 개선 전망 - 제조업 경기 회복에 따른 설비투자 확대 및 정부의 스마트공장 활성화 정책에 따른 구조적 성장 전망
코텍 (052330)	14,100 (-3.8)	14,650 (1/24)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글로벌 슬롯머신 1위, 2위 업체를 고객사로 보유한 카지노용 모니터 생산 기업으로 올해 사상 최대 매출액 및 영업이익 전망 - 고객사의 커브드 제품 비중 확대에 따른 제품믹스 개선으로 카지노모니터 부문의 영업이익률 상승 예상 - 현금성자산이 시가총액의 절반을 상회하는 등 안정적인 재무 구조 보유
삼성엔지니어링 (028050)	14,900 (+20.2)	12,400 (12/28)	<ul style="list-style-type: none"> - 3분기까지 중동 플랜트 시장에서 가장 많은 수주를 확보한 것으로 파악되어 글로벌 업체 중 Best performer로 자리매김할 전망 - 최근 유가 상승에 따라 PTT, 페트로나스, SABIC 등 전통적으로 우호적인 발주처의 투자 재개 전망 - 급속한 턴어라운드에 따라 2018년 예상 PER은 16.6배까지 낮아질 전망
하이비전시스템 (126700)	16,450 (+26.5)	13,000 (12/28)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듀얼카메라와 3D카메라 시장의 확대와 고사양화에 따른 검사장비 수요 증가 전망 - 하반기부터 신규 거래처와 장비 매출이 추가되며 삼성과 애플이 전략 스마트폰에 듀얼카메라를 탑재함에 따른 수혜 전망 - 18년 예상 PER 8.4배로 Peer 업종의 평균 PER 16배 대비 저평가
다나와 (119860)	14,350 (+5.5)	13,600 (12/28)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스마트폰의 보급과 IT기술의 발전으로 디지털 쇼핑 증가에 따라 가격비교 수요의 저변확대에 따른 수혜 전망 - PC중심에서 가전/가구, 생활용품, 패션잡화 등으로의 플랫폼 확장에 따른 레버리지 효과 기대 - 시가총액의 약 30%에 해당하는 순현금 보유로 주가 하락경직성 확보

■ Compliance notice

- 당사는 상기 유망종목을 1% 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 당사는 현재 삼성엔지니어링 발행주식을 기초자산으로 ELW(주식워런트증권)를 발행 중이며, 당해 ELW에 대한 유동성 공급자(LP)입니다.
- 당사는 동 자료를 기관투자자 또는 제3자에게 사전에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
- 동 자료의 금융투자분석사와 배우자는 자료 작성일 현재 본 자료와 관련해 재산적 이해관계가 없습니다.

중장기 유망종목: 이마트 외 5개 종목

(단위: 원, %, 십억 원, 배)

종 목 (코드)	현재가 (수익률)	편입가 (편입일자)	2018년 추정실적				
			매출액	영업이익	순이익	EPS	PER
이마트 (139480)	280,000 (-1.8)	285,000 (2/7)	18,167	613	474	17,013	17.3
			- Affinity Equity Partners 및 BRV Capital Management와의 투자 양해각서(MOU) 체결로 온라인 사업 부문 역량 강화 전망				
			- 대규모 신규투자를 통해 기존의 협상력과 물류망의 경쟁우위가 확고해짐에 따라 신규 상품의 개발역력 확대 예상				
			- 외형성장과 함께 손익 개선에 따른 가시적 성과가 나타나는 구간으로 리레이팅 본격화 가능성 상존				
SK이노베이션 (096770)	185,500 (-9.3)	204,500 (12/28)	44,967	5,308	2,919	31,321	6.4
			- 정유 수급이 타이트해져 내년 정제마진 상승 가능성 확대				
			- 지속 가능한 ROE 개선을 감안할 때 주당 적정가치는 372,153원 혹은 그 이상 상승 가능				
			- 내년 배당수익률은 6%에 근접하여 매력적인 배당도 리레이팅 요인으로 작용 가능				
한솔시큐어 (070300)	5,810 (-1.5)	5,900 (12/28)	19	3	2	272	21.7
			- 사물인터넷 생태계의 확장은 eSIM(embedded SIM)의 수요 증가로 이어질 전망				
			- 보안솔루션 전문기업인 G+D(독일 스마트카드업체인 G&D의 자회사)의 지분 투자에 따라 시너지 효과 기대				
			- 2018년 하드웨어 보안을 강화하는 TEE(Trusted Execution Environment) 사업을 재개함에 따라 보안 인식 강화에 따른 수혜 전망				
크린앤사이언스 (045520)	16,850 (+28.6)	13,100 (12/28)	92	11	9	1,446	11.9
			- 미세먼지로 인한 환경 변화와 소득 수준 향상에 따른 공기청정기 수요의 구조적 증가 전망				
			- 국내 공기청정기 제조사들의 중국 진출에 따른 수혜 전망				
			- 10월 공기청정기 수요 증가와 신규 고객 유입 대응을 위한 MB(부직포) 증설로 레버리지 효과 기대				
SK텔레콤 (017670)	240,000 (-10.1)	267,000 (12/28)	17,753	1,757	3,033	42,955	6.4
			- IPTV 수익호전, 사물인터넷 가입자 증가, 5G 서비스로 성장성이 두드러질 것				
			- 콘텐츠 이용 확대에 따른 데이터 트래픽 증가는 요금상향으로 이어져 손익에 긍정적				
			- SK브로드밴드, SK플래닛, SK하이닉스 등 자회사의 지분가치 상승, 배당 매력				
이오텍 (091120)	16,200 (-8.0)	17,600 (12/28)	191	14	10	659	26.6
			- 국내 유일의 BA(Balanced Amature)스피커 생산 업체로 스피커 활용기술 발전에 따른 수혜 전망				
			- 지난해 베트남 공장 증설과 자동화 설비 확대를 통한 생산성 확대와 인건비 절감 예상				
			- 갤럭시노트8과 V30 출시로 하반기 마이크로스피커와 리시버 관련 매출 증가 전망				

■ Compliance notice

- 당사는 상기 유망종목을 1% 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 당사는 현재 SK이노베이션, 이마트, SK텔레콤 발행주식을 기초자산으로 ELW(주식워런트증권)를 발행 중이며, 당해 ELW에 대한 유동성 공급자(LP)입니다.
- 당사는 동 자료를 기관투자자 또는 제3자에게 사전에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
- 동 자료의 금융투자분석사와 배우자는 자료 작성일 현재 본 자료와 관련해 재산적 이해관계가 없습니다

국내외 금융시장 및 수급 동향

한국시장 주요 지표

한국	2/12(월)	등락률(%)			
주요지수	종가	1D	5D	1M	YTD
KOSPI	2,385.38	0.91	-4.27	-4.45	-3.33
KOSPI200	308.13	1.08	-4.69	-5.69	-5.11
대형주	2,303.73	1.06	-4.70	-5.56	-4.77
중형주	2,802.02	-0.23	-3.25	-0.76	2.44
소형주	2,156.67	-0.14	-2.35	2.53	6.06
KOSDAQ	843.24	0.08	-1.75	-3.41	5.61
KOSDAQ150	1,505.58	-0.08	-2.12	-8.12	6.49

수급	2/12(월)	1D	5D	1M	YTD
거래량	KOSPI	351	352	471	401
(백만 주, 기간 평균)	KOSDAQ	692	692	1,022	1,121
거래대금	KOSPI	6,534	6,631	8,097	7,397
(십억 원, 기간 평균)	KOSDAQ	4,979	4,980	7,451	8,344

(단위: %, bp)

금리	2/12(월)	1D	5D	1M	YTD
국고채 3년물	2.29	1.00	4.20	13.40	15.30
국고채 5년물	2.54	1.00	1.30	14.80	18.80
국고채 10년물	2.77	1.90	1.50	19.70	30.00
회사채 3년(AAA-)	2.72	1.80	2.00	14.80	17.00
회사채 3년(BBB-)	8.95	1.80	1.50	13.30	16.50

(단위: 원, %)

외환	2/12(월)	1D	5D	1M	YTD
원/달러	1084.50	0.70	0.37	-1.81	-1.58
원/100엔	997.11	0.31	0.34	-4.08	-5.04
원/유로	1329.44	0.60	1.96	-3.61	-4.01
원/위안	171.31	0.84	0.91	-3.99	-4.24

업종 지수	2/12(월)	1D	5D	1M	YTD
KRX 업종 지수					
자동차	1,640.09	-2.01	-6.44	-1.5	-5.75
반도체	2,689.68	0.82	3.06	0.78	-3.38
헬스케어	4,365.30	1.81	1.03	-7.9	13.52
은행	949.49	3.37	-5.71	-5.85	1.35
에너지화학	2,669.77	0.92	-3.74	-5.26	-3.42
철강	2045.67	0.45	-2.88	-7.26	-0.36
방송통신	947.81	-0.98	-5.84	-7.09	-7.66
건설	573.81	-1.18	-8.28	-5.7	2.31
증권	810.48	3.16	-2.11	2.41	13.75
기계장비	590.26	-0.98	-4.29	-4.54	10.29
보험	1902.41	0.71	-6.01	-3.22	-1.74
운송	597.21	-0.25	-3.49	-1.16	2.8
유틸리티	1,191.96	-1.16	-6.00	-3.41	1.22

업종 지수	2/12(월)	1D	5D	1M	YTD
KOSDAQ150					
기술주	1,830.75	-0.08	-2.22	-8.99	6.73
소재	1,467.05	1.20	2.63	-3.52	-6.58
산업재	335.16	-1.30	-3.14	-0.57	7.13
필수소비재	1,222.43	-0.09	6.77	22.01	19.64
자유소비재	1,159.98	-0.62	-4.19	-3.17	-0.78
정보기술	736.43	0.37	1.46	0.41	-2.94
생명기술	5,196.48	-0.23	-2.61	-10.29	10.31
문화기술	2,259.08	-0.27	-1.01	4.51	1.03

주체별 당일 순매수 동향

(단위: 십억원)

구 분		개 인	외국인	기관계	(금융투자)	(보험)	(투신)	(사모)	(은행)	(연기금 등)	(국가, 지자체)	기 타
유 가 증 권	매수	3,300	1,872	1,433	257	111	265	158	18	289	318	42
	매도	3,203	1,951	1,416	536	69	156	111	17	347	196	43
	순매수	97	-79	-17	-279	41	109	47	2	-58	122	-1
	2018년 1월 누계	3,150	-1,967	-1,271	-2,164	266	764	22	-55	-175	71	88
	2018년 누계	1,037	-11	-1,902	-2,574	609	882	-170	-130	-646	128	875
코 시 닥	매수	4,313	369	277	45	11	56	53	4	31	67	31
	매도	4,172	469	266	52	10	35	66	4	69	42	61
	순매수	141	-100	-11	-7	1	21	-13	0	-38	25	-30
	2018년 1월 누계	954	-1,203	227	401	-26	61	-153	-14	-63	21	22
	2018년 누계	2,125	-1,074	-771	-215	-59	294	-588	-55	-132	-16	-279

KOSPI 기관/외인 당일 매매 상위 업종

(단위: 억원)

	기관				외국인			
	순매수		순매도		순매수		순매도	
업종	건강관리	692	자동차	-384	반도체	641	건강관리	-388
	화학	378	화장품, 의류, 완구	-310	은행	179	소프트웨어	-294
	증권	291	통신서비스	-244	화장품, 의류, 완구	155	화학	-254
	반도체	194	소매(유통)	-196	소매(유통)	140	증권	-198
	IT하드웨어	103	상사, 자본재	-181	보험	90	건설, 건축관련	-183
종목	KODEX 200	732	KODEX 200TR	-624	KODEX 200TR	624	KODEX 200	-718
	셀트리온	626	삼성전자	-258	삼성전자	494	셀트리온	-484
	SK하이닉스	341	KT	-223	삼성바이오로직스	195	NAVER	-353
	롯데케미칼	340	아모레퍼시픽	-153	SK하이닉스	188	롯데케미칼	-226
	KODEX 코스닥	182	현대차	-153	아모레퍼시픽	113	한국금융지주	-99
	150선물인버스	182	현대모비스	-118	KB금융	87	고려아연	-76
	삼성바이오로직스	136	금호석유	-113	KT&G	83	LG디스플레이	-72
	한국금융지주	112	삼성물산	-113	현대백화점	70	대우조선해양	-65
	삼성엔지니어링	104	삼성중공업	-108	롯데쇼핑	67	삼성엔지니어링	-55
	미래에셋대우	99	한미약품	-107	POSCO	62	한온시스템	-54
	녹십자	87						

KOSDAQ 기관/외인 당일 매매 상위 업종 및 종목

(단위: 억원)

	기관				외국인			
	순매수		순매도		순매수		순매도	
업종	반도체	90	건강관리	-246	반도체	0	건강관리	-411
	디스플레이	58	조선	-30	증권	0	IT하드웨어	-163
	호텔, 레저서비스	38	소매(유통)	-28			디스플레이	-82
	기계	17	화장품, 의류, 완구	-22			기계	-48
	IT하드웨어	14	화학	-16			미디어, 교육	-40
종목	바이로메드	148	알리코제약	-264	바이로메드	58	신라젠	-153
	동진썬미켈	70	셀트리온헬스케어	-164	텍셀네트컴	57	차바이오텍	-56
	제이콘텐트리	61	CJ E&M	-61	로엔	31	셀트리온헬스케어	-47
	텍셀네트컴	44	풀어비스	-52	원익IPS	30	메디톡스	-46
	SK머티리얼즈	36	아시아중요	-40	동진썬미켈	20	알리코제약	-41
	휴젤	35	컴투스	-30	휴젤	19	서울반도체	-40
	카페24	35	아모텍	-29	에스에프에이	15	인터플렉스	-40
	JYP Ent.	34	로엔	-26	카페24	14	제이콘텐트리	-29
	레고캠바이오	27	이녹스첨단소재	-24	코미팜	13	젬백스	-26
	메디톡스	25	웹트론	-22	SKC코오롱PI	13	풀어비스	-23

시가총액 상위 종목 등락률

KOSPI (단위: 십억원, 원, %)

종목명	시가총액	증가	1D	YTD
삼성전자	293,492	2,286,000	2.28	-10.28
SK하이닉스	54,236	74,500	1.50	-2.61
셀트리온	37,107	302,500	5.03	36.82
현대차	33,923	154,000	-0.65	-1.28
POSCO	31,649	363,000	3.13	9.17
삼성바이오로직스	27,922	422,000	5.37	13.75
KB금융	26,885	64,300	5.41	1.42
NAVER	26,370	800,000	-0.99	-8.05
LG화학	26,260	372,000	1.64	-8.15
삼성물산	24,280	128,000	0.39	1.59

KOSDAQ (단위: 십억원, 원, %)

종목명	시가총액	증가	1D	YTD
셀트리온헬스케어	15,994	116,300	-2.27	7.1
신라젠	6,025	88,500	-3.17	-5.4
바이로메드	3,455	216,500	6.18	32.6
메디톡스	3,322	587,200	-0.47	21.1
CJ E&M	3,254	84,000	-2.55	-14.0
셀트리온제약	3,001	90,000	-0.33	47.1
풀어비스	2,954	244,800	4.35	-1.1
티슈젠	2,878	47,500	0.74	-8.3
포스코캠텍	2,626	44,450	-2.42	11.7
로엔	2,605	103,000	-2.37	-8.4

Global Asset Monitor

글로벌 주식		(단위: %)				
구분	지역/국가	종가	1D	5D	1M	YTD
지역	MSCI 세계	500.91	0.04	-2.87	-6.06	-2.36
	MSCI 선진국	2,050.90	0.29	-2.51	-6.15	-2.50
	MSCI 신흥국	1,142.85	-1.74	-5.50	-5.41	-1.35
DM	S&P500	2,619.55	1.49	-5.16	-5.98	-2.02
	Dow Jones	24,190.90	1.38	-5.21	-6.25	-2.14
	Nasdaq	6,874.49	1.44	-5.06	-5.32	-0.42
	Russell 2000	1,477.84	0.96	-4.49	-7.17	-3.76
	영국 FTSE 100	7,178.85	1.22	-2.13	-7.71	-6.62
	프랑스 CAC	5,151.35	1.42	-2.54	-6.63	-3.03
	독일 DAX 30	12,318.61	1.74	-2.91	-6.99	-4.64
	스페인 IBEX	9,795.50	1.62	-2.67	-6.37	-2.47
	일본 니케이	21,382.62	-2.32	-8.13	-9.60	-6.07
	홍콩 항셱	29,459.63	-0.16	-8.64	-6.22	-1.54
EM	코스피	2,385.38	0.91	-4.27	-4.45	-3.33
	코스닥	843.24	0.08	-1.75	-3.41	5.61
	중국 상해종합	3,154.13	0.78	-9.56	-8.01	-4.63
	홍콩 H지수	11,900.31	-0.01	-11.72	-4.56	1.63
	인도 Sensex	34,300.47	0.87	-1.31	-0.84	0.72
	베트남 VN	1,041.79	3.77	-0.66	-0.79	5.85
	인도네시아 JCI	6,523.45	0.28	-1.00	2.41	2.64
	러시아 RTS	1,206.31	1.73	-4.55	-4.34	4.49
	브라질 Bovespa	80,898.70	-0.78	-3.74	1.95	5.89
	멕시코 Mexbol	47,799.09	-0.13	-5.52	-2.72	-3.15
글로벌 업종	에너지	167.70	0.48	-5.32	-10.29	-3.88
	소재	212.18	0.95	-3.79	-7.06	-1.68
	산업재	283.73	0.49	-3.21	-7.44	-2.92
	경기소비재	260.61	0.52	-2.29	-5.20	-1.75
	필수소비재	291.67	0.53	-2.14	-5.32	-2.64
	헬스케어	531.80	0.47	-0.02	-3.28	0.69
	금융	181.28	0.08	-4.60	-4.42	-0.41
	IT	358.87	0.37	-1.39	-5.30	-1.24
	통신서비스	170.81	0.17	-2.61	-4.07	-3.60
	유틸리티	161.14	0.11	-2.71	-4.66	-5.58

글로벌 환율		(단위: %)				
구분	지수/국가	종가	1D	5D	1M	YTD
지수	달러 인덱스	90.24	-0.22	0.77	-0.81	-2.04
	무역가중 달러 인덱스	115.85	0.56	0.37	-2.32	-2.70
미주	브라질	3.30	-0.47	-2.48	-1.57	0.35
	멕시코	18.66	0.22	0.67	2.03	5.36
아시아	한국	1,084.50	0.70	0.37	-1.81	-1.58
	일본	108.69	0.10	0.37	2.18	3.68
	중국	6.33	-0.40	-0.57	2.22	2.81
	대만	1.28	-0.25	0.60	1.09	-0.32
	인도	64.31	0.13	-0.38	-1.04	-0.68
유럽	유로존	1.23	0.16	-0.78	0.57	2.22
	영국	1.38	0.15	-0.80	0.87	2.48
	러시아	57.93	0.76	-1.08	-2.30	-0.42

주: 달러 대비

글로벌 채권		(단위: bp)				
지역	국가	종가	1D	5D	1M	YTD
미주	미국	2.88	2.91	17.47	33.41	47.49
	캐나다	2.35	-2.30	-1.10	14.90	30.70
	브라질(USD)	9.94	8.30	14.30	-7.60	-31.60
유럽	멕시코	7.75	9.60	14.70	26.00	9.60
	독일	0.77	2.30	3.20	18.70	34.10
	영국	1.62	5.00	6.20	28.10	43.00
아시아	프랑스	1.01	2.00	0.90	15.30	22.00
	이탈리아	2.04	-1.40	0.90	5.20	1.90
	러시아	4.32	6.30	17.20	52.60	45.30
아시아	한국	2.77	1.90	1.50	19.70	30.00
	일본	0.07	0.00	-1.80	-1.20	1.80
	중국	3.89	-0.60	-3.20	-5.60	-1.10
	호주	2.91	5.00	-2.40	15.90	28.20
	인도	7.51	1.50	-2.50	22.30	17.90

원자재		(단위: %, USD/oz, bu, MT)				
구분	지수/상품	종가	1D	5D	1M	YTD
지수	S&P 원자재 지수	428.53	-2.18	-5.11	-5.45	-3.14
	LMEX 지수	3,270.70	-1.44	-5.13	-3.23	-4.33
	CRB 지수	438.40	-0.56	-1.14	-0.33	1.40
에너지	원유(WTI)	59.20	-3.19	-9.55	-5.97	-2.02
	원유(Brent)	63.76	1.54	-5.71	-8.74	-4.65
	천연가스	2.57	-0.62	-6.52	-19.75	-13.04
금속	금	1,313.10	-0.29	-1.54	-0.05	0.29
	은	16.14	-1.24	-3.41	-5.12	-5.87
	구리	6,755.00	-1.31	-4.12	-4.89	-6.79
	아연	3,385.00	-1.07	-3.34	1.50	1.99
	알루미늄	2,123.00	-2.17	-3.94	-1.37	-6.39
농산물	S&P 농산물 지수	288.56	-0.49	1.83	3.52	2.28
	옥수수	362.00	-1.03	0.14	3.72	3.21
	밀	449.00	-1.59	0.50	3.88	5.15
	대두	983.00	-0.48	0.43	2.00	2.21

변동성		(단위: %)				
구분	지수	종가	1D	5D	1M	YTD
미국	VIX	26.37	-9.26	-29.34	159.55	138.86
유럽	VSTOXX	28.25	-18.67	49.83	159.12	109.08
한국	VKOSPI	21.67	-8.68	33.44	97.00	79.68

한 눈에 보는 매크로 일정

월	화	수	목	금
5	6	7	8	9
韓> 실적발표: SK텔레콤	韓> 실적발표: KT, 고려아연, 만도 美> 실적발표: GM, Allergan 12월 무역수지(십억달러) (-53.1, -52.1, -50.4)	韓> 실적발표: 신한지주, CJ E&M 美> 실적발표: Gilead Sciences, Disney MBA 주택용자 신청지수 (0.7%, n/a, -2.6%)	韓> 읍선만기일 실적발표: KB금융, 현대중공업 美> 실적발표: Nvidia, Humana 연방정부 예산안 통과 기한 신규 실업수당 청구건수(천건) (n/a, 232, 230) 日> 12월 BoP 경상수지(십억엔) (797.2, 1056.9, 1347.3)	韓> 실적발표: 기업은행 美> 실적발표: AIG, 12월 도매재고 MoM (0.4%, 0.2%, 0.2%) 中> 1월 PPI YoY (4.3%, 4.3%, 4.9%) 1월 CPI YoY (1.5%, 1.5%, 1.8%) 日> 12월 3차 산업지수 MoM (-0.2%, 0.2%, 1.1%)
12	13	14	15	16
韓> 실적발표: 현대로보틱스	美> 실적발표: Under Armour 日> 1월 PPI YoY (n/a, 2.7%, 3.1%)	韓> 실적발표: BGF 리테일 1월 실업률 (n/a, n/a, 3.6%) 美> MBA 주택용자 신청지수 (n/a, n/a, 0.7%) 1월 CPI MoM (n/a, 0.4%, 0.2%) 1월 소매판매 추정 MoM (n/a, 0.3%, 0.4%) 유럽> 4Q GDP SA YoY (n/a, 2.7%, 2.7%) 日> 4Q GDP SA YoY (n/a, 0.0%, 0.1%)	美> 실적발표: Cisco, CBS 신규 실업수당 청구건수(천건) (n/a, 228, 221) 1월 PPI 최종수요 MoM (n/a, 0.4%, -0.1%) 1월 광공업생산 MoM (n/a, 0.2%, 0.9%) 日> 12월 핵심기계수주 MoM (n/a, n/a, 5.7%) 12월 광공업생산 MoM (n/a, n/a, 2.7%)	美> 읍선만기일 실적발표: Coca-cola 1월 주택착공건수(천건) (n/a, 1336, 1192) 2월 미시간대 소비자신뢰 (n/a, 95.5, 95.7)
19	20	21	22	23
	韓> 실적발표: 유한양행 美> 실적발표: Walmart 유럽> 2월 ZEW 서베이 예상 (n/a, n/a, 31.8) 2월 소비자신뢰 (n/a, n/a, 1.3)	美> FOMC 회의록 공개 MBA 주택용자 신청지수 (n/a, n/a, n/a) 2월 마켓 제조업 PMI (n/a, n/a, 55.5) 유럽> 2월 마켓 유로존 제조업 PMI (n/a, n/a, 59.6) 日> 2월 닛케이 제조업 PMI (n/a, n/a, 54.8)	美> 신규 실업수당 청구건수(천건) (n/a, n/a, n/a) 1월 기준주택판매(백만) (n/a, 5.63, 5.57) 1월 선행지수 (n/a, n/a, 0.6%)	日> 1월 CPI YoY (n/a, n/a, 1.0%) 유럽> 1월 CPI YoY (n/a, n/a, 1.4%)

주: 괄호안은(발표치, 블룸버그 예상치, 이전치) 순이며 예상치는 변동 가능
 발표일자는 한국시간 기준 (단, 오전 6시 이전에 발표되는 지표는 전일 기입)
 실적발표일은 Bloomberg, 기업 공식 기준으로 작성 (변동 가능, *표시는 한국시간 당일 아침